

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 보험계약대출, 약관 개선 필요해

보험계약대출(구 약관대출)은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에게 유용한 금융서비스다.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 받는 식이다. 하지만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_황성근 과장(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보험계약관련대출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

보험계약 부활 시 대출이자 과다

A씨는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 콜센터에 문의해 '대출이자가 113만 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며칠 후 영업대리점에 문의하니 대출이자가 315만 원이라고 했다. 안내 받은 금액 차가 커 콜센터에 재문의한 결과, 실효상태일 경우 대출이자율은 1.8%이지만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자동으로 5.1%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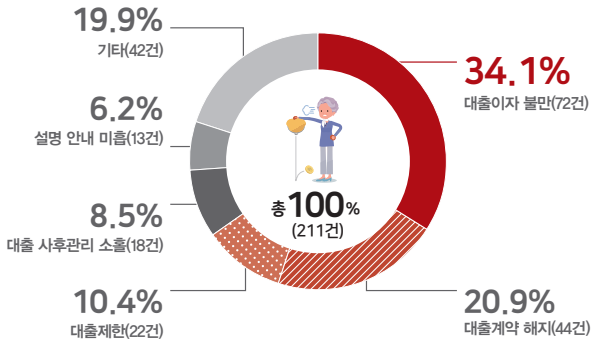
“

신용회복 신청을 이유로 대출 대상 보험계약 강제해지

B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을 신청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 4건(보험계약대출 750만 원)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보험사는 해당 약관에 "신용회복 신청 시 상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나, B씨는 대출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

불만유형별 현황



보험계약대출 평균*가산금리 및 유사 금융상품 가산금리 현황 (단위: 공시기준)

구분	보험계약대출		유사 금융상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금리 확정	2.07% (1.5%~2.58%)	1.54% (1.0%~2.0%)	1.5%	2.0%	1.5%	1.0%~2.0%
금리 연동형	1.50% (1.38%~1.5%)	1.67% (1.04%~1.88%)	1.0%	2.0%	1.5%	1.0%~2.0%

* (생명,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산술평균한 값임.

‘대출이자’ 관련 불만 가장 많아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했다.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계약 해지’(44건, 20.9%)와 ‘대출제한’(22건, 10.4%)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출 사후관리 소홀’(18건, 8.5%), ‘설명·안내 미흡’(13건, 6.2%) 등이 있었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1.08%, 최저 1.5%~최고 2.58%)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환급금 대출은 생명보험사보다 약 0.5% 낮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함.

비대면 대출 때 중요사항 안내 미흡해 개선 필요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예: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DB손해, 현대해상, KB손해(2017년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 2조 원 이상 보유 10개사/생명 6개사·손해 4개사)

TIP

◆◆◆◆◆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이용 전 유의사항 ◆◆◆◆◆

- ① 대출이자 미납 시 대출이자가 원금에 가산된다. 장기간 연체 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자 납부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② 보험금 수령 시 대출금이 공제된 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③ 연금개시 후 계약해지가 불가한 종신연금 등의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연금개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④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사에 즉시 알려 각종 통지 등을 받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금융회사 간 협조해 한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기록된 소비자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서비스